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 행안부장관 표창

전주시, 우수사례 선정 국비 2억원 확보... 재난 예방·신속 대처 위해 스마트 배수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 등 도입

전주시가 예기치 못한 국지성 호우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진기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국비 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재난을 예방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 배수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동시에 물을 상시 저장할 수 있는 우수지(4만㎡)와 펌프장(1,150㎡/min) 1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로(2.1km)를 정비했으며 교량 10개소를 재가설했다. 또 가로변 미관을 고려해 옥방길에는 가드레일 대신 수목을 식재해 마을환경도 개선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침수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17개 지구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이 중 8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현재 중인동과 금상동, 전미동 등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향후 5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 발굴해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진기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국비 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전주시설공단, 무인 공영주차장 비상 출차 가능 시스템 개선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병우)은 무인 공영주차장 가운데 시스템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주권역 공영주차장 가운데 20개 주차장은 관리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연중무휴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정전이나 통신장애 등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차량기가 열리지 않아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민의 발이 주차장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공단은 주차장 이용 시민이 직접 출차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비상 출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차장 출차 차단기 안에 수동으로 작동하는 키 박스를 설치해 고장으로 시스템 원격제어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객이 직접 외부 키 박스를 개방해 수동 외어를 돌려 차단기를 여는 방식이다.

시스템 개선으로 무인 주차장 이용 중 장애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063-230-2767~69)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출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책기둥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9월 4일~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유아·초등학생 가족 10팀 대상

전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시청 내 책기둥도서관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 10팀을 대상으로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책놀이 전문가인 최명숙·박명분 강사와 함께 ▲이름 꾸미고 새로운 단어 찾아보기 ▲나도 디자이너 ▲숫대 만들어 소원 빌기 ▲똥으로 말해요 등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한다.

특히 어린이 참여자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구연 기법을 활용해 실감 나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책기둥도서관(완산구 노송광장로 10)을 방문하거나 전화(063-230-1845)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활동을 통해 읽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



전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시청 내 책기둥도서관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 10팀을 대상으로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여름 밤에 즐기는 크리스마스

23~29일 첫마중길·경기전 일원서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아쉽게 지나간 작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한여름 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시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지역 앞 첫마중길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일원에서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연다.

'우리의 잃어버린 크리스마스(LOST CHRISTMAS)'를 주제로 한 이 행사는 ▲전주한옥마을 8월의 크리스마스 가든 ▲전지역 첫마중길 루미나리에 ▲산타클로스 비대면 횡단보도 공연 ▲메타버스(가상공간) 내 크리스마스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 꽃밭정 원에는 '크리스마스 꽃'으로 불리는 포인세티아와 크리스마스 트리, 각종 조형물이 비치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연출된다. 전지역 앞 첫마중길에서는 밤 10시까지 20m 길이의 크리스마스 루미나리에가 밤하늘을 밝힌다.

또 첫마중길과 전지역 사이 횡단보도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산타클로스 분장한 크리스마스 비대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대면 행사를 취소한 시는 특별히 MZ세대들을 위해 네이버Z의 제페토 내에 가상공간도 마련키로 했다. 행사 후반에 경기전 앞 태조로와 전지역 앞 첫마중길이 가상공간으로



재현될 예정이다.

첫마중길과 경기전 앞에 마련된 포토존과 메타버스 내에서 인증샷을 찍은 뒤 인스타그램에 #visitjonju_official, #전주8월의크리스마스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참가자들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전주를 찾은 방문객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하며 전주시에서 맞은 한여름 밤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메타버스 공간도 마련될 예정인 만큼 특별히 경기전 앞 태조로와 전지역 앞 첫마중길이 가상공간으로

전주시, 야호놀이터 유튜브 공모 김민아 씨 대상 선정

전주시는 야호놀이터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진행된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서 김민아 씨의 '이야~~호!!'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8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적합성, 창의성, 홍보성, 구성력이 좋았던 총 7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대상작인 김민아 씨의 '이야~~호!!'는 덕진공원 맘껏놀이터와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쉬고,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꾸밈없이 영상에 담아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양인영 씨의 '야호놀이터에서 찾은 5가지 즐거움'과 송선

화 씨의 '우리 YAHOO(야호)!!'가 선정됐다. 우수상작은 ▲김동성 씨, '숲에서 찾은 모험의 놀이터' ▲정경애 씨, '도심 속 아이들의 천국 전주 야호놀이터' ▲오상우 씨, '아이들에게 놀이만큼은=equal' ▲김동용 씨, '우리 아이의 행복한 성장~! 야호놀이터와 함께~'로 결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각 50만 원, 우수상 각 25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유튜브 영상은 향후 전주 야호놀이터 홍보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숲놀이터 13개소, 책놀이터 3곳, 덕진공원 맘껏놀이터,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팔복예술공장,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